무안 항공특화산단에 해경 항공기지 들어선다

무안군 -서해해경청 4만㎡ 분양계약 정비고 신설 등 통합 항공기지 조성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에 해양경찰의 통합 항 공기지가 조성된다.

무안군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무안 항 공특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부지에 대한 분양계

통합 항공기지는 현재 무안군이 개발 중인 무안 국제공항 인근 항공특화단지 내 기존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 인근에 들어선다. 부지는 4만 ㎡ 규모다.

총 계약금액은 62억7000여만원이며, 서해해경 청은 이번 계약대금으로 31억4000여만원을 납부 하게 되다

서해해경청은 확보된 부지를 해경 고정익·회전 익 임무 수행 및 정비, 훈련 기능을 집약한 통합 항 공기지로 개발한다.

고정익 정비고 신설을 시작으로 회전익 항공대 와 시뮬레이터 센터 등을 2026년까지 설치할 계획 이다.



무안군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무안군청 상황실에서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내산업시설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이를 통해 7만797km에 달하는 서해해경청 관할 해역뿐만 아니라 독도와 이어도 등 우리나라 전 해 역에 대한 항공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서해해경청과 무안군 은 국민의 안전과 항공 산업발전을 위한 공통의 목 적을 갖고 있다"며 "상호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인 해경 통합 항공기지와 항공특화산업단지를 구 축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특화산단 조성 사업은 서해해경청의 부지 매입 등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토부에서 2030년까지 항공정비(MRO)산업을 5조원 규모 로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추진 방향을 발표해 청신호가 켜졌다.

김산 무안군수는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서해지 방해양경찰청과 지난 2019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간 신뢰가 쌓여 계약체결까지 이루는 값진 결실을 이루게 됐다"며 "해외에 의존 하던 항공정비기술이 국내 자체적인 항공정비기 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미래 항공산업을 지역특화 선도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망운면 피서리 일대에 35 만㎡ 규모의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 며, 이 중 27만 여㎡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완도전복(주)이 싱가포르에 34만달러 어치의 전복 통조림을 수출한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 터가 수출상담회를 통해 거둔 결실이다.

완도전복(주) 싱가포르 수출

34만달러 어치 전복 통조림

EVERG

완도전복(주)는 전복 양식 어민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2009 년 완도군이 어업인들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최근 코로나19로 판매 부진과 고수 온 피해 최소회를 위해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대출 월 15만원까지 지원

영광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 자를 지원하는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 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자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 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모집대상은 10가구이며,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목포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

목포시는 '2021년 목포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31일까지 추천받는다.

목포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목포시를 빛낸 내·외국인을 발굴 ·시상하는 상이다.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106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역사와 권위가 있는 상이다.

추천 부문은 ▲ 지역사회봉사 ▲ 교육문화 ▲ 경 제 ▲ 체육 ▲ 효행 ▲ 특별활동부문 등 6개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으슥한 뒷골목이 안심골목으로

해남읍 5일시장 인근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변신

땅끝 해남의 5일시장 인근 으슥한 골목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화사한 안심골목길로 변 신했다.

해남군은 해남읍 5일시장 일원 주택밀집지역에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셉테드(CEPTED)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해남읍 도시재생뉴 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 된 주거지의 골목 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상지는 5일시장~오작교 구간으로 주민들이 밤길이 무서워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평상시 112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소비자상담실

꼽혀온 장소이다.

군은 셉테드 기법을 활용해 자연을 닮은 디 자인이 가미된 벽화 및 컬러 포장을 실시, 밝 은 이미지의 걷고 싶은 골목 환경으로 탈바꿈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 보안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수면장애를 최소화하고, 야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녁 과 심야로 구분해 점·소등 할 수 있도록 거주 민들의 생활안정을 고려했다. 범죄 예방을 위 한 CCTV도 설치해 안전을 확보했다.

군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2곳의 안심 골목길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해남군 도시 재생뉴딜사업은 해남읍 고도리 일원을 대상 으로 2024년까지 진행하는 일반근린형 도시 재생사업으로 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되는 대 규모 사업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문 열었다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

전시관·체험실·수장고 등 갖춰

신안 도서지역의 자생식물을 연구·전시·보전·관리하는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가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 개관했다. 〈사진〉

연면적 6836㎡ 규모의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는 지상 1층으로 건립됐다. 전시관, 체험실, 수장 고, 연구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은 20개의 테마별(실물 전시, 영상, 키오스크, 증강현실 체험, 디오라마, 신안에코모자이크)로 신안과 연계된 자생식물의 이야기를 복합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또 신안 고유의 섬 식물, 희귀식물, 식생, 서식처 생태계에 관한 내용 등을 관람객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구센터는 동식물 표본, 유전자원 등 2만점의

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시설과 연구시설 을 갖췄다.

군은 연구센터가 신안 도서·연안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조사·발굴과 생물자원 유용성 검증 및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도서지역 생물사업의 발전 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 생물자원 확보 및 생태계 서비스 구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를 멸종위기 식물 종을 보호관리하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환경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란 서식지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생물을 서식지 외에서 체계적으로 보전·증식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지정하고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정 기관은 3년 이상 당해 종에 대한 증식기술 연구 및 증식분양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련분 야 전문가 3인 이상, 식물 증식시설 등 기준에 적 합해야 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그린**궁을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